

한국인의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 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를 중심으로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송 관 재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본 연구는 한국인의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을 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150명(남: 89명, 여: 61명)과 40세 이상 성인 155명(남: 80명, 여: 75명)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일상생활 경험이 없는 탈북자 80명(남: 39명, 여: 41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적 특성 7개 차원 및 이에 대응하는 서구적 특성 7개 차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행동 및 타인의 행동(대학생과 성인은 남한사람의 행동 그리고 탈북자는 북한사람의 행동)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탈북자, 성인 그리고 대학생 순으로 전통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서구적 가치는 서로 차이가 없는 대학생과 탈북자집단보다 성인에게 더 적었다. 또한, 탈북자의 가치구조가 서로 차이가 없는 대학생과 성인집단보다 더 이중적이었다.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과 관련해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 세 집단 모두 타인의 행동보다 자신의 행동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 이것은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에서 자신들을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평가차원에서 이 세 집단 모두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동과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한국문화, 문화변동, 가치구조, 행동판단, 이중성, 세대차이, 탈북자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한국사회의 근대사는 일제의 강점과 해방, 분단과 전쟁, 근대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갈등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외래문화에 대한 개방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고, 식민지배로 인한 근대화의 왜곡과 공백이 있었으며, 해방 후 정치·경제·사회의 변화가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등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신수진, 최준식, 2002), 이런 특성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치체계의 혼란이나 가치갈등이 심각하다(신수진, 최준식, 2002; 임희섭, 1994; 정태연, 2001). 한국인이 경험하는 가치체계의 혼란은 성격상 서로 대립적인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공존 즉, '가치구조의 이중성'에 기인하는데(신수진, 최준식, 2002),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판단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다(임희섭, 1994).¹⁾ 또한, 서구문화가 성인보다는 젊은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줌으로써, 문화적 변동이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동은 한국인의 행동과 사고 간에 큰 괴리를 야기하고 있다.

비록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한국인들이 전통과 서구문화의 바람직한 특성들 가령, 합리성, 긍정성, 인본주의나 이타주의 등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판단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은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편법적인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인식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아 보인다. 가령, 동일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자신보다는 타인이 한 경우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동판단의 이중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남한사람의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이 북한사회에서 문화적 변동을 경험한 사람들 가령, 탈북자들에게도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록, 북한사회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문화변동의 구조적 특성은 남한사회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분단 이전인 식민지 시대에 서구문화가 한국에 유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의 뿌리 역시 남한사회와 동일하다. 또한, 서구문화의 유입도 그 속도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서구문화가 남한사회 및 북한사회로 들어와서 문화적 변동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에 남북한 차이가 없다. 물론, 서구문화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흔치 않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남한 혹은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는 상당할 수 있다. 가령, 금강산 개발이나 개성공단건설, 혹은 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화 정책 등은 서구문화의 유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와 행동의 측면에서 남한사람의 특성과 탈북자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문화

1) 이중적 가치구조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문화적인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한 변동에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출됨으로써 이중적 가치구조를 가질 수 있고,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가치구조를 가질 때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중적 가치구조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서구적 문화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이중적 가치구조에서 세대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변동의 거시적 방향과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을 대학생, 성인 그리고 탈북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가치구조의 변화와 이중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화가 가져온 부작용 중의 하나가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서로 대립적 성격을 지닌 상이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규범이 적용되는 이중가치구조이다(최봉영, 1994). 이 상황을 ‘전통성’과 ‘근대성’²⁾이 혼재하는 문화적 이중구조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신수진, 최준식, 2002).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신수진, 최준식, 2002; 임희섭, 1994; 최봉영, 1994; 최재석, 1965). 그 중 하나는 도덕을 통한 인간완성을 강조하는 인간관이다. 이러한 인본주의는 근대적 물질주의와는 달리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 혹은 인간적 가치를 더 강조한다. 또 다른 특징

은 권위주의적 가치지향으로, 인간관계나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서열을 중시하여 일상적인 삶의 수준에서부터 법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위계적 구조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집합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집합체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는 근대문명의 유입과 더불어 대칭적인 성격의 서구적 가치로 이행하고 있다(나은영, 차재호, 1999; 박재홍, 1999; 한규석, 신수진, 1999; 한상필, 1997; 홍승직, 1994). 가령, 임희섭(1994)의 분석에 따르면, 인본주의적 지향은 물질주의적 지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서구의 경우처럼,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물질만능주의나 배급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적 가치가 근대적 평등주의의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의 전통적 집합주의적 가치지향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약화되고 그 대신 개인주의 가치관이 한국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도 한국인의 경우에 무규범 상태와 같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양상은 세대·지역·계층에 따라 다르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사회의 세대 간 차이는 이러한 급격한 문화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의 이중성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최준식, 1997). 그 이유는 서구문화의 영향이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서(나은영, 차재호,

2) 근대란 경제적으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사회적 변화, 정치적으로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및 프랑스 공화제 이후 나타난 근대국가 혹은 근대 민족주의 국가의 출현, 정치 및 경제 이외에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나타난 사상 및 학문의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국한해서 근대화라는 개념을 서구화라는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서구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고, 서구화로 인해 물질지향적인 특성을 많이 갖게 되었지만, 근대화나 서구화가 곧 미국화나 물질주의화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1999; 이재창, 최운보, 정영애, 최경선, 1983; 정영숙, 김향숙, 권수애, 1997; 조성남, 1991; 한상필, 1997; 홍승직, 1994), 젊은 세대의 가치체계가 더 빠른 속도로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차이와 관련된 서구문화의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성인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들에게서 가령,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평등주의적이고 물질지향적인 특성이 더 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대차이는 과거보다 문화변동의 속도가 더 빠른 현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정태연, 한광희, 2001).

그렇다면, 북한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의 가치구조는 어떠할까?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 남한사회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리고 북한사회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 왔다. 이처럼 해방 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전통적 가치체계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무엇보다도 해방 이전까지 남북한이 공유한 역사적 동질성에 기인한다. 특히, 유교적 가치체계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핵심적인 구성요소임을 감안할 때(신수진, 최준식, 2002; 임희섭, 1994; 최봉영, 1994; 최재석, 1965), 북한의 전통적인 가치도 인본주의 권위주의 및 집합주의적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체계가 이러한 전통적 가치체계를 완화하기 보다는 유지나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체제는 탈물질주의적 노선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들의 비판이 노동으로부터의 인간소외, 이윤극대화로부터 오는 생산체계의 왜곡 및 갈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주의체계가 물질주의적 가치를 지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북한은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당이 절대 권력을 갖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권위적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박현선, 2003).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가 공동체적 운용에 근거한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 혹은 국가라고 하는 집합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도 북한이 전통적 가치체계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예를 들면, 북한사회는 사회주의적 가부장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박현선, 2003),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나 가족적 맥락에서 권위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북한은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사상들 가령, 남아존중사상, 조상숭배, 남성우위사상 등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이은죽, 1990; 전우택, 민성길, 1996; 한성열, 2000). 또한 북한의 강력한 가부장적 문화가 북한사람들의 성역할에 대한 개념을 고정화하여 이에 대한 가치관을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다(정진경, 2002; 정태연, 최영진, 김영만,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람들의 가치체계 역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냉전의 시기였던 1970년대까지 폐쇄된 고립사회였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북한은 여러 대외적인 이유로 자본주의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 시기에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이데올로기가 그 설득력을 잃으면서 국가의 이념이나 체제의 중요성이 크게 삭감되었다. 또한,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무너지면서, 북한은 체제에 대한 불안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더군다나, 경제 및 사회구조의 붕괴위험의 증가와 함께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이 고조

되면서, 북한정부는 개방을 통한 경제적 재건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개방이 중국이나 한국 등을 통한 간접적 통로에 의한 것인 간에 결국 북한사회로의 서구문화의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기존 북한사회의 문화적 변동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이 개방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서구적 가치의 유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꾀하고 있으며(박현선, 2003), 경제특구의 개발이나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의 부분적 수용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경제 및 문화교류의 증대와 러시아나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교류 증대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북한사회에 서구문화의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남한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에서도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공존하는 이중가치구조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탈북자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사람들도 가치구조의 이중성을 가질 수 있지만, 외래문화의 유입이 남한사회에 비해 그 속도가 더디고 양도 적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에 비해 북한사람들은 전통적인 특성을 더 많이 그리고 서구적 특성을 더 적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서구문화의 특성은 남한의 젊은 세대와 성인 세대 그리고 탈북자 순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전통적인 특성은 탈북자, 남한의 성인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의 순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치구조의 이중성

이 어느 집단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한국사람들이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이 두 문화의 부정적 특성에 더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 가치구조의 이중성이 의미하듯이, 한국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서구와 전통문화의 부정적인 특성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한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특성 중에서도 합리성, 개인 존중, 혹은 인본주의 등 장점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이것을 개인적 및 사회적 행위의 당위성이나 도덕성을 평가하는 준거나 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장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서구나 전통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서구 및 전통의 부정적인 측면에 근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김병국, 1997; 나은영, 민경환, 1998; 함재봉, 1997). 의식적으로는 합리성과 평등, 인본주의와 이타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행동은 물질지상주의, 이기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 등에 근거하고 있다(나은영, 1995; 나은영, 민경환, 1998). 가령,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정치문화, 가족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가 강력하게 남아 있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물질주의, 편법주의, 배금사상 등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구조의 변화로 평등주의와 업적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통

적 관료체제와 귀속주의, 연고주의 등이 팽배하다(이재창 등, 1983).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은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의 바람직한 특성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행동은 주로 이 두 문화의 부정적인 특성에 기초하고 있을 때, 한국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의 부정적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동일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국인들의 평가는 매우 다를 수 있다. 먼저, 그러한 행동을 한 주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 한국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사람이 전통문화나 서구문화의 부정적 특성에 근거한 행동을 할 때, 한국사람들은 이에 대립하는 서구나 전통문화의 긍정적 특성을 잣대로 평가함으로써, 그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가령, 권위주의적 행동은 평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부정적이고, 물질주의적 행동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이다. 실제 한국인들의 부정적 행동은 사회 전체에 상당히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관찰한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세대 간 차이 없이 한국인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정태연, 2001; 정태연, 한광희, 2001).

비록 한국인들이 다른 한국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한국인의 한 일원인 자신에 대한 평가는 덜 부정적일 수 있다. 가령, 동일한 부정적 행동에 대한 판단이 이중적이라(신수진, 최준식, 2002), 자신이 그 행동을 했을 때 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편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심하게 비난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이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편법주의가 나쁜

대로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정적 행동을 덜 한다고 평가함으로써, 타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일한 행동에 대한 이중적 판단은 타인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려는 판단자의 자기고양편파에 근거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적 행동에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사회적 및 개인적 비난을 적어도 심리적으로 피하게 해 줌으로써,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더군다나,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남한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북자들도 북한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북한은 모든 사회적 측면에서 위기에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식량배급이나 임금이 중단되거나 절대적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교육의 파행적 운행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붕괴, 계급격차와 같은 사회적 갈등요인의 심화, 정치권력의 사회통제력 상실 등(박현선, 2003)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뇌물은 일상적인 일로 발전하여 뇌물수수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매춘과 유랑 등으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내외통신사 부설 북한문제연구소, 1995). 북한 이탈자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윤인진, 2000) 북한사회가 심각한 문제를 배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탈북의 동기가 대부분 북한 사회의 체제에 대한 환멸 및 심각한 생활고 때문으로(황무임, 1998), 독재체제, 인권에 대한 침해 및 낙후된 경제수준이 북한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들도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전체로서 북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결국 이들이 행동 판단의 이중성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생, 성인 그리고 탈북자들 사이에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치구조의 이중성에서도 이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둘째, 대학생, 성인 그리고 탈북자들은 동일한 행동을 한 행위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인 경우에 그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에게 전통적 특성과 서구적 특성을 나타내는 각각 4개 차원을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150명(남: 89명, 여: 61명), 성인 155명(남: 80명, 여: 75명), 탈북자 80명(남: 39명, 여: 41명)이 참가했다. 대학생의 평균 나이는 19.12세($SD = 1.18$), 성인은 48.78세($SD = 4.59$)였다. 성인의 학력은 중졸 이하 12명, 고졸 81명, 대졸 44명, 대학원졸 이상이 18명이었다. 직업은 자영업 53명, 직장인 29명, 전문직 21명, 주부 4명, 기타 2명(결측치 3명)이었다. 탈북자들의 귀순기간은 모두 1년 미만으로, 한국에서 개별적 주

거지와 직업을 가지고 보통의 남한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일상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었다.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함경북도 54명, 평안도 5명, 강원도 3명, 황해도 2명, 양강도 2명, 강도 1명 그리고 기타 4명이었다. 평균연령은 33.19세($SD = 13.36$)였고 기혼 40명, 미혼 39명, 무응답 1명이었다. 또한 국졸 2명, 중졸 43명, 고졸 24명, 대졸 8명, 무응답 3명이었다. 북한에서의 이들의 직업은 노동자 52명, 사회보장직 4명, 지도반 4명, 학생 5명, 군인 2명, 무직 7명 및 무응답 6명이었다.

측정도구

Triandis(1995)가 개발한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척도로서 수직적 집단주의(7문항), 수직적 개인주의(8문항), 수평적 집단주의(10문항)와 수평적 개인주의(7문항)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 별로 4문항 총 16문항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alpha = .65, .60, .71, .68$ 이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한 이러한 4개의 차원에서 서로 대조적인 두 차원 중 어느 차원이 더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일견 단순히 전통적인 집단주의가 서구적인 개인주의에 비해 덜 바람직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판단에 일반적인 합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각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세분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의 바람직성을 미리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 외에, 전통적 및 근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편법주의, 원칙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타주의, 이기주의(신수진, 최준식, 2002) 등 10개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김재운(1987), 신수진(1998), 신수진과 최준식(2002) 그리고 Trompenaars(1996)가 사용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각 차원 별로 4개의 문항 총 40문항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³⁾ 이 차원에 대한 신뢰도는

3)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항들의 예를 가치관단과 관련해서 각 차원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위주의는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강자와 약자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등주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기보다는 말로 설득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지식의 정도에 상관없이 관련된 모든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본주의는 “누군가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직업을 택할 때 단순히 보수가 높은 일보다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질주의는 “내가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 편법주의는 “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 손해 본다고 생각한다.”, “잘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령과 수단이 좋아야 한다.” 원칙주의는 “남의 일이라도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한다.”,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의 친분관계보다는 원칙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보수주의는 “여성교육의 목적은 현모양처(혹은 훌륭한 가정주부)를 양성하는데 있다.”, “혼전에 성경험을 하는 것은 나쁘다.” 진보주의는 “성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남성은 그렇지 않은데 여성만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타주의는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의 삶에서 양보와 협동은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기주의는 “남의 처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내 일을

순서별로 Cronbach $\alpha = .69, .56, .62, .81, .72, .68, .71, .52, .70, .69$ 이었다.

이러한 차원 중에서 평등주의, 인본주의, 원칙주의, 진보주의 그리고 이타주의가 이에 각각 대응하는 차원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특성이라는 판단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을 긍정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들을 부정적인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료분석 및 논의를 전개하였다.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4개의 평가차원을 이용하여 3가지 측면을 측정하였다. 즉,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서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평가하였고(1), 자신의 평소 행동을 평정하였으며(2), 마지막으로 한국인(대학생과 성인)은 남한사람 그리고 탈북자는 북한사람의 전반적인 행동특성을 평정하였다(3). 문항은 질문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변형하였다. 예를 들면, 나의 가치관을 평가할 경우 “다음의 각 문항에서 당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응답하게 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평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고(가령, 나은영, 민경환, 1998; 임희섭, 1994), 한국인들이 하는 다양한 행동들 및 그들과 관련된 자료들 가령, 대중매체를 통해 나오는 내용, 다양한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 그 밖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볼 때, 이러한 판단은 어렵거나 불분명하다도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별도로 연구참가자들에게 평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가할 경우 “다음의 각 문항에서 당신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나는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따른다.”에 응답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할 경우 “다음의 각 문항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한국인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한국사람들은 높은 사람의 말을 잘 따른다.”에 응답하도록 했다.

절차

대학생과 성인에 대한 자료 수집은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조별로 남녀대학생 10명과 남녀성인 10명을 성별 비율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설문지 표지에는 설문지의 목적, 지시문 및 응답요령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 미리 학생들에게 자료 수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을 시작하기 전 응답자들에게 설문지 표지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해서 설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설문을 실시하도록 학생들에게 요청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특정 요일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전반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본 절에서는 먼저, 대학생 성인 그리고 탈

북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전통적 및 서구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치관의 이중성에서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이들이 행동판단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알아볼 것이다.

가치구조의 변화와 이중성

전통적 가치차원에 대한 평가치 및 이에 대응하는 서구적 가치차원에 대한 평가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세 유형의 평가자 모두 거의 모든 차원에서 3점 전후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평가차원들 간에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 차원에 해당되는 가치관을 중간 수준 정도로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자 유형(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과 가치차원(전통적 대 서구적)에 따른 가치평가점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 두 변인에 따라 가치점수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3×2 혼합모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 유형에 따른 점수에서 탈북자, 성인, 대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_{(2, 382)} = 37.32$, $p < .001$. 가치차원에 따른 주효과는 없어서, 전통적 가치점수와 서구적 가치점수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둘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F_{(2, 382)} = 56.85$, $p < .001$. 즉, 평가자 유형에 따른 가치점수의 패턴이 가치차원에 따라 달랐다.

각 가치차원에서 평가자 유형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가치차원에서는 모든 평가자

표 1. 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가 보고한 가치점수

차원 \ 평가자	대학생(N=150)	성인(N = 155)	탈북자(N = 80)
전통적 평가차원			
수직-집단	3.17(.58)	3.55(.50)	3.86(.37)
수평-집단	3.74(.44)	3.76(.45)	3.88(.36)
권위주의	2.65(.66)	2.94(.61)	3.27(.61)
인본주의	3.49(.58)	3.65(.53)	3.58(.83)
편법주의	2.95(.58)	2.90(.66)	3.19(.60)
보수주의	2.26(.59)	2.89(.56)	3.32(.41)
이타주의	3.59(.55)	3.84(.50)	4.02(.51)
전체	3.12(.76) ^a	3.36(.68) ^b	3.58(.59) ^c
서구적 평가차원			
수직-개인	3.30(.51)	3.21(.55)	3.68(.59)
수평-개인	3.42(.52)	3.32(.48)	3.75(.50)
평등주의	3.56(.53)	3.60(.49)	3.56(.50)
물질주의	3.04(.73)	2.91(.67)	3.03(.83)
원칙주의	3.33(.53)	3.65(.51)	3.54(.58)
진보주의	3.73(.56)	3.50(.52)	3.42(.54)
이기주의	2.84(.48)	2.64(.59)	2.71(.67)
전체	3.32(.62) ^a	3.26(.65) ^b	3.38(.70) ^a

주. 평가는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차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특성이 큼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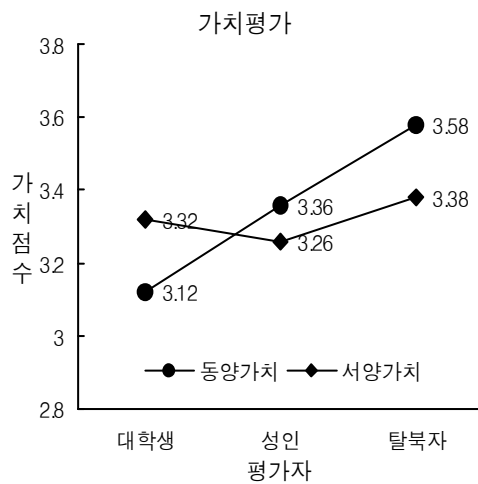


그림 1. 평가자 유형과 가치차원에 따른 가치평가

유형들 간에 차이가 유의미해서, $F_{(2, 382)} = 84.66$, $p < .001$, 탈북자, 성인 그리고 대학생 순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서구적 가치차원에서도 평가자 유형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F_{(2, 382)} = 4.96$, $p < .01$, 대학생과 탈북자는 서로 같았지만 성인집단은 이 두 집단보다 낮았다.

각 평가자 집단은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 중에서 어느 쪽의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서로 대응하는 두 가치차원에서 전통적 가치 점수에서 서구적 가치점수를 뺀 차이점수를 계산하였다. 그 점수가 음(-)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구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양(+)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계산 결과, 대학생은 $-.20(SD = 1.15)$, 성인은 $.10(SD = 1.10)$ 그리고 탈북자는 $.20(SD = .92)$ 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F_{(2, 382)} = 56.52, p < .001$, 대학생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성인과 탈북자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학생집단이 전통적 가치관에 비해 서구적 가치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성인과 탈북자는 그와 반대임을 지적해 준다.

가치구조의 이중성이 평가자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각 참가자 별로 서로 대립하는 가치차원 중에서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차이점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은 $.91(.73)$, 성인은 $.87(.68)$, 탈북자는 $.68(.65)$ 로 나타났다. 이 점수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세 점수들 간의 차이는 유의했는데, $F_{(2, 382)} = 9.77, p < .001$, 대학생과 성인집단은 동일했지만 탈북자가 이 두 집단에 비해 더 낮았다.

행동평가의 이중성

평가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 즉, 대학생과 성인의 경우 한국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 그리고 탈북자의 경우 북한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 즉, 행동판단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각 평가자 집단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개인주의 집단주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 별로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개인주의-집단주의에서의 평가는 대체로 3점 전후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 약간의 차이만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에 대한 평가치는 서로 대조적이며 이러한 대조적 특성이 자신이나 타인이나에 따라 반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타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뚜렷한 경향이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4개 하위차원 전체에 대하여, 평가자 유형(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과 평가대상자(타인과 자신)에 따른 점수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두 변인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3×2 혼합모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F_{(2, 382)} = 30.92, p < .001$, 탈북자, 성인 그리고 대학생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평가대상자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여, $F_{(1, 382)} = 98.25, p < .001$, 자신을 타인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여, $F_{(2, 382)} = 4.32, p < .01$,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 패턴이 평가자 유형에 따라 달랐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타인에 대한 평가 간의 차이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4개 하위차원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차원별로 평가대상자에 따른 평균치들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이 때, 평가자

표 2. 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가 보고한 자신과 타인의 행동평가점수

평가자 및 차원	대 학생(N=150)		성인(N = 155)		탈북자(N = 80)	
	타인	자신	타인	자신	타인	자신
개인주의-집단주의						
수직-집단	3.38(.47)	3.21(.55)	3.41(.48)	3.46(.53)	3.58(.59)	3.74(.45)
수평-집단	3.19(.48)	3.33(.46)	3.26(.52)	3.51(.45)	3.12(.57)	3.60(.56)
수직-개인	3.45(.45)	3.49(.56)	3.45(.46)	3.25(.63)	3.60(.49)	3.59(.56)
수평-개인	2.52(.45)	3.26(.58)	2.81(.52)	3.17(.57)	3.30(.57)	3.68(.55)
전체	3.13(.59)	3.32(.55)	3.23(.56)	3.35(.56)	3.40(.59)	3.65(.49)
긍정적 평가차원들						
인본주의	2.35(.43)	3.14(.58)	2.53(.60)	3.39(.58)	3.21(.57)	3.47(.53)
이타주의	2.68(.45)	3.37(.50)	2.75(.60)	3.62(.47)	2.90(.77)	3.89(.34)
평등주의	2.51(.51)	3.37(.60)	2.65(.61)	3.37(.46)	2.93(.65)	3.45(.47)
원칙주의	2.44(.47)	3.01(.52)	2.60(.60)	3.28(.54)	2.98(.62)	3.38(.53)
진보주의	2.37(.49)	3.18(.53)	2.39(.50)	3.08(.51)	2.68(.56)	3.12(.49)
전체	2.47(.48)	3.21(.57)	2.58(.59)	3.35(.54)	2.94(.66)	3.46(.53)
부정적 평가차원들						
권위주의	3.55(.46)	2.74(.55)	3.56(.46)	2.94(.55)	3.55(.53)	3.17(.57)
편법주의	3.48(.48)	2.92(.51)	3.56(.59)	2.87(.60)	3.46(.62)	3.28(.60)
보수주의	3.05(.51)	2.88(.61)	3.28(.46)	3.27(.54)	3.42(.51)	3.42(.47)
물질주의	3.89(.49)	3.30(.70)	3.86(.65)	3.08(.75)	3.68(.70)	3.45(.73)
이기주의	3.08(.43)	2.93(.51)	3.06(.44)	2.62(.62)	3.25(.77)	2.72(.59)
전체	3.41(.57)	2.95(.61)	3.47(.60)	2.96(.65)	3.47(.64)	3.21(.65)

주. 평가는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차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특성이 큼을 의미.

들의 유형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비록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에 따른 상호작용이 존재하지만, 그 평가패턴이 매우 유사하여 평가대상자에 따른 세부적인 구분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평가자들은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 차원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매우

유사하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차원에서는 자신을 타인보다 매우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수평적 개인주의차원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개인주의-집단주의의 4개 하위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10개의 차원에서 평가자의 유형(대학생, 성인 및 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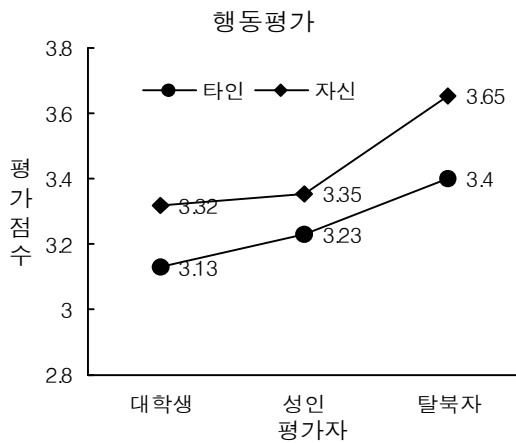


그림 2. 개인-집단주의 하위차원 전체에서 평가자 유형과 평가대상자에 따른 행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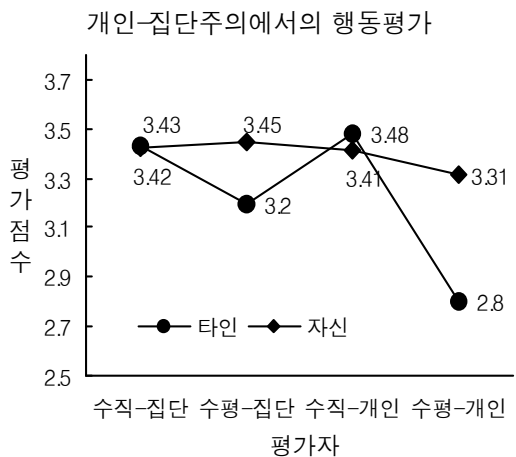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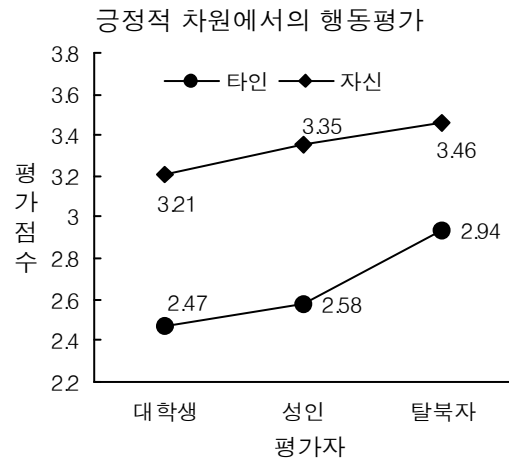


그림 3.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각 하위차원에서 평가대상자에 따른 행동평가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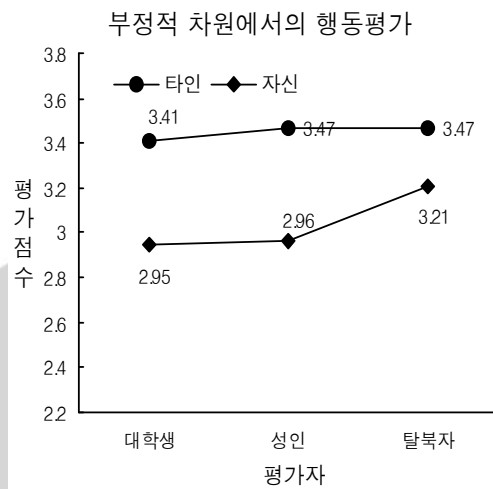


그림 4. 개인주의-집단주의 하위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차원에서 평가자 유형, 평가대상자 및 평가차원의 바람직성에 따른 행동평가의 전체점수

자에 따라, 평가대상자(타인 및 자신)에 따라 그리고 평가차원의 바람직성(긍정적 및 부정적)에 따른 평균치들이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가 세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3 X 2 X 2 혼합모형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F_{(2, 382)} = 45.15, p < .001$, 탈북자,

성인, 대학생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았다. 또한, 평가대상자와 평가차원의 바람직성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미하여, 각각 $F_{(1, 382)} = 138.52, p < .001$, $F_{(1, 382)} = 139.44, p < .001$, 자신보다는 타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차원에 대한 평가를 더 높게 했다. 평가자 유형과 평가차원의 바람직성 그리

고 평가대상자와 평가차원의 바람직성 간에 이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하여, 각각 $F_{(2, 382)} = 6.06, p < .01$, $F_{(1, 382)} = 665.84, p < .001$,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차원에 대한 평가패턴은 평가자 유형 및 평가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세 변인 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_{(2, 382)} = 11.94, p < .01$. 이 결과에 따르면, 평가자들은 긍정적 차원에서는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차원에서는 타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세 집단의 평가자 중에서 탈북자들이 이러한 경향성을 가장 약하게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성인 그리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치구조의 변화와 이중성 그리고 행동평가에서의 이중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통적 가치는 탈북자, 성인 그리고 대학생 순으로 높았으며, 서구적 가치는 성인이 차이가 없는 대학생 및 탈북자보다 낮았고, 가치구조의 이중성은 탈북자들에게서 가장 컸다. 뿐만 아니라, 세 유형의 참가자 모두 행동에 대한 평가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 모든 평가자 집단이 자신을 타인보다 더 높게 평가했으며, 나머지 차원들의 경우 평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비해 대학생과 성인은 남한사람의 행동을 그리고 탈북자는 북한사람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논의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서로 대응하는

차원에 따라 그리고 집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평가자들은 서구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가치 모두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 가치구조는 많은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먼저, 소위 공적 영역에 적용하는 윤리규범과 사적 영역에 적용하는 윤리규범이 다르고(김형철, 1997), 이것이 사회적 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 행동을 척결해야 할 문제라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제일 경우, 그러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실제 부정적 행동이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중가치구조는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집단 간 차별을 유지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녀에 따라 이중적인 성의 기준을 발달시킴으로써, 이것이 성차별을 합리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한국여성연구소, 1999). 이러한 이중가치구조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일한 행동을 판단할 때 행위자나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일관적인 판단의 준거를 결여하게 되고,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한의 대학생이나 성인들처럼, 탈북자들도 이중가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탈북자들이 북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 왔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도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가 서구적인 가치로 이행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두 문화의 가치가 공존하는 상태에 있음을 본 연

구의 결과는 시사한다. 또한, 아시아권 여타 국가들의 경우를 함께 고려해 볼 때, 탈북자들이 보인 이중가치구조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변동의 방향이나 특성이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함축해 준다. 이것은 결국 북한사회도 문화변동 과정 속에서 남한사회가 경험했던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화충돌이나 갈등 혹은 부작용을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북한사람들이나 탈북자들이 문화변동으로 생기는 문제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한국사회 쪽에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생각할 때, 탈북자의 한국 내 적응이나 통일 이후 북한사람들의 적응을 돕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 이중가치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단에 따라 서구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 가치에 대한 비교에서 탈북자, 성인 그리고 대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상대적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이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 대학생은 전통적 가치보다는 서구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성인과 특히, 탈북자는 전통적 가치를 서구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세대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대학생과 성인의 차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김애순, 1997; 나은영, 차재호, 1999; 신은숙, 1976; 윤진, 1985; 이재창 등, 1983; 정태연, 한광희, 2001; 차재호, 1985). 앞

서 언급했듯이, 서구의 문화적 영향이 성인 세대보다는 청소년 세대에 미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나은영, 차재호, 1999; 이재창 등, 1983; 정영숙 등, 1997; 조성남, 1991; 한상필, 1997; 홍승직, 1994), 서구문화에 기초한 행동적 특성은 젊은 세대에 그리고 전통문화에 기초한 행동은 성인 세대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또한, 과거보다는 오늘날 문화변동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세대차이의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이재창 등, 1983; 정태연, 한광희, 2001).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서구문화에 대한 개방 시기나 그 정도를 고려해 볼 때, 탈북자들이 남한사람들보다 전통적인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당연해 보인다. 말하자면, 북한사회의 경우 외래문화의 유입이 남한사회에 비해 느리고 적어서 전통적 특성에 근거한 가치체계가 남한사람들에 비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가치구조의 이중성 정도를 서로 상응하는 가치차원에서의 차이점수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탈북자들이 가장 이중적인 가치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 성인, 대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중에서 전통적 가치점수가 가장 높았던 탈북자들에게서 높은 이중성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서구적 가치에서의 높은 점수 때문이다. 실제, 서구적 가치에서 성인이 가장 낮고 대학생과 탈북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것과 다른 것으로,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 탈북자들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추후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서구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차이와 관련해서 볼 때, 세 집

단 모두에 매우 일관적인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수직-집단차원 대 수직-개인차원 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로 대응하는 차원들의 모든 쌍에서 그 차이의 방향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대한 하위차원들을 제외하고 볼 때, 이 결과는 전통적 및 서구적 가치 중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의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정태연, 한광희, 2001), 가치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도 일치한다(예로, Kluckhohn, 1962). Rokeach(1973)에 의하면 가치관 어떤 목적 상태가 그 반대적인 상태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지속적인 신념이다. 이는 사람들이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 더 기초하여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과 관련해서 볼 때, 한국인은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사람의 행동이란 결국 평가자 자신을 포함한 각 개인들의 행동의 모임이라고 할 때, 참가자들의 자신에 대한 행동평가는 그들이 평가한 한국인의 행동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비록 이러한 결과는 소수의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한국의 정치나 정부 관계자들 뿐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드러나는 일반인의 행동들을 보면, 행동판단의 이중성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너무나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가령, 정치인들은 다른 정치인들의 불법선거운동이나 압력행사 등 부정행위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지만, 자신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 관행이라는

평계 등으로 합리화한다. 이와 같은 행동판단의 이중성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는 한국사회의 문제와 병폐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만 전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 책임감과 변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을 등한시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문제는 존재하되,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행동판단의 이중성과 관련해서 볼 때,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정태연, 2001; 정태연, 한광희, 2001)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세대 간 유사성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란 것이 특정 사람들 가령, 특정 세대가 그것을 (문제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사회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임을 함의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서구문화 및 전통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근거한 한국인의 행동을 그러한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근거한 인식의 틀 속에서 평가하기 때문이다(김병국, 1997; 나은영, 민경환 1998; 함재봉, 1997).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긍정적 사회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Tajfel, 1982; Tajfel & Turner, 1979). 즉,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사회정체감에 심각한 손상과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다른 한국인에 대한 불신과 비하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람들로 하여금 친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과 성인이 한국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정도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탈북자

들도 북한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기존연구와도 유사하다(정태연 등, 2003). 물론 탈북자들의 이러한 평가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사람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탈북자들의 탈북이유를 보면(황무임, 1998), 탈북자들은 북한사회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탈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탈북자들이 자신들을 북한사람으로 동일시할 때, 부정적인 사회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이 그들을 탈북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한국에 귀순하여 거주하면서 직면하는 문제 또한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먼저, 탈북자들은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기 쉬운데(전우택, 2000; 전우택, 민성길, 1996, 그것은 자신들이 남한사회와 북한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 어느 한 쪽의 것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일부분을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한을 자신의 정체성의 기초로 삼는다 하더라도, 남한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들도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윤인진, 1999, 2000), 의식구조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많이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민성길, 2000). 이는 탈북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들의 적응을 돕는데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의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은 특정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탈북자들을 포함한 전체 사회에 만연한 총체적인 현상이다. 이중적 가치구조는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문화적 변동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지적하듯이, 한국사회의 변동은 서구문화로의 이행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서구문화가 모두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유지하고 서구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모색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동시에 시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다르게 평가하는 소위, 행동판단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의식적이고 심리적인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병국 (1997). 반유교적 유교정치: 한국 정치담론의 모순. *전통과 현대*, 1, 50-73.
- 김애순 (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형철 (1997). 현대의 도덕관과 유교의 도덕관. *전통과 현대*, 1, 132-151.
- 나은영 (1995).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33-51.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내외통신사 부설 북한문제연구소 (1995). 북한 실상 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 서울: 내외통신사 부설 북한문제연구소.
- 민성길 (2000). 통일과 남북청소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재홍 (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신은숙 (1976). 세대간의 갈등문제와 교육. 교육학연구, 14(1), 59-69.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 근본사상과 정착과정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7-152.
- 신수진, 최준식 (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 집문당.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인진 (2000). 탈북자의 취업 및 직장부적응 상황. 2000년도 후기 사회학 대회 자료집, 247-252.
- 윤진 (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운죽 (1990).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참여. 북한연구, 1, 88-104.
- 이재창, 최운보, 정영애, 최경선 (198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임희섭 (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67-91.
- 전우택, 민성길 (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정영숙, 김향숙, 권수애 (1997). 신세대 가정의 가족 가치관 연구.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한림과학원편, pp. 328-426). 서울: 소화.
- 정진경 (2002). 북한사람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74-281.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 정태연, 한광희 (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회, 21(1), 1-14.
- 조성남 (1991).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요약집, 66-73.
- 차재호 (1985). 70년대말에서의 가치, 태도 및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학연구, 2(2), 129-168.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 II. 서울: 도서출판 느티나무.
- 정태연, 최영진, 김영만 (2003). 탈북자가 본 북한의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3(3),

- 29-47.
- 최재석 (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한국여성연구소 (1999). *새 여성학강의*. 서울: 동녘.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상필 (1997). 광고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한림과학원편, pp. 251-325). 서울: 소화.
- 한성열 (2000).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131-153.
- 함재봉 (1997). 유교와 세계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 *전통과 현대*, 1, 26-49.
- 홍승직 (1994). *사회발전과 한국인의 가치문제*. 서울: 일신사.
- 황무임 (1998).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의 현황. *복지행정연구*, 14, 1-23.
- Kluckhohn, C. (1962).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 E.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8).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L: Western Press.
- Trompenaars, F. (1996). *국제화와 이문화 적응*. 삼성인력개발원.

1 차 원고 접수일 : 2006. 4. 5
최종 원고 접수일 : 2006. 7. 12

Duality in Value Structure and Behavioral Judgment System: Comparisons Between Undergraduates, Adul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Kwan-Jae Song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Behavior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attempted to compare duality in value structure and judgment system between youth, adul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50 college students(Men: 89, Women: 61), 155 adults(Men: 80, Women: 75) and 80 North Korean defectors(Men: 39, Women: 41). Participants rated their values, behavior and South Korean behavior (or North Korean behavior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 a whole both on the 7 dimensions relevant to characteristics indigenous to Korean society and on their opposite 7 dimensions characteristic of Western culture. Results indicated that defectors marked the highest score on the traditional value dimensions, and yet youth ranked the first for the western value systems. Also, duality in value systems was the most severe for the defectors. In relation to dual judgement system in behavior, both young and old generation judged Korean behavior more negatively than their own. This was also the case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o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cultural changes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Korean society, dual value structure, dual judgment system, North Korean defectors